

## 1년10개월 앞 광주U대회 준비 우왕좌왕 성공개최 '비상'

### 추진상황 보고회 사령탑 잃은 조직위 비틀 강시장 "부서 호흡 안맞아" 정부 예산·인력 지원 미적

1년10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제28회 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이하 U대회)가 대회 준비에 올인 해야할 시점에 사령탑을 잃으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처리해야할 업무는 점점산중인데, 조직을 통솔해야할 책임자가 없다 보니 기본 업무에도 우왕좌왕하는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

26일 오전 'U대회 추진상황보고회'가 열린 조직위원회 대회의실의 분위기는 어수선했다.

조직을 이끌어 오던 김윤석 U대회 사무총장이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공문서 위조로 구속된 여과 때문인 지 보고회 진행도 매끄럽지 못한 모습이 었다. 언론사에 취재를 요청해 놓고도 일부에서 비공개로 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부서 간 호흡이 잘 안 맞을 개를 놓고 의견 충돌을 빚기도 했다.

강운태 광주시장도 이 같은 분위기를 감지한 듯 "지난주 에릭스 포럼과 북한 청소년들이 참가한 YLP대회를 개최하면서 부서 간 호흡이 잘 안 맞는 듯 해 아쉬웠다"고 지적했다.

결과, 공개로 진행된 이날 보고회에선 민감한 사안들은 거론되지 않았지만, 예산과 인력 확보, 총감독 선임, 후원기업 유치 등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박창기 기획본부장은 "2014년도 필요 예산 1100억원 중 국비는 400억원인데, 현재 150억원 밖에 확보를 하지 못했다"면서 "대회 개최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나머지 250억원을 올해 안에 꼭 확보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또 인력 운영과 관련

해서도 "현재 정원이 180명인데, 이를 내년부터는 400명 수준으로 늘려야 하고, 이들이 오면 사무실도 넓은 곳으로 옮겨야 한다"며 "인력 증원 부분은 내달 중으로 문제부의 승인을 받아 2014년 1월 광주시 인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광주시와 문제부가 2019세 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와 관련해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협조가 절대적인 예산 확보와 인력 충원이 원만히 이뤄질지는 의문이다.

박종택 경기본부장은 대회 개최희 식 총 감독 선임과 국제대학교수연맹(FISU)과의 재협상 문제 등을 보고했다. 박 본부장은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점은 개최희식 총감독 선임문제"라면서 "대회 성공의 척도는 사실상 개최희식의 성공에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자문위원회(18명)를 구성하고, 10월 중에 총감독을 선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경기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기장 37개와 훈련장 39개 등 76개의 경기 시설을 마련해야 하는데, 흑자대회를 위해선 FISU와의 협의를 통해 시설수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FISU와 협의는 김윤석 사무총장이 도맡아왔다는 점에서, 그의 공백이 느껴지는 부분이다.

박 본부장은 예산 확보의 어려움도 호소했다. 대회에 앞서 대회시설을 미리 점검하는 국제 대회를 유치해야 하지만 예산이 없어 국내 대회로 대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신영환 홍보마케팅 본부장은 "지난 해엔 아시아나항공 등에 U대회 홍보를 했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없어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보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대학홍보대사(유니프렌즈)도 애초 1만5000명 중 1700명을, 15만 명이 목표인 대학생 서포터즈(유니버즈)는 1만5000명을 모집하는데 그쳤다. /박진표기자hucky@kwangju.co.kr



백일홍 향기 맡으며... 호랑나비의 가을맞이 연연한 가을 날씨를 보인 26일 광주 북구 충효동 무등산 자락에 붉은 빛이 곱게 물든 백일홍 위에 호랑나비 두 마리가 정겹게 앉아 가을을 만끽하고 있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전일빌딩 리모델링해 부분 준치"

강시장 "시민 여론 반영" 광주시가 금남로의 상징건물인 전일빌딩을 리모델링해 문화 시설 등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2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시민들이 역사성이 있는 건물인 전일빌딩을 리모델링해 보존했으면 좋겠다고 해 안전진단을 했는데, 리모델링하면 부분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시민 여론조사에서도 60%가 철거하자고 했고, 전문가 여론도 전면 철거보다는 부분 준치 리모델링을 통해 이를 따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시장은 "관련 부서는 테스트포스팅을 구성해서 공공용 활용을 목표로 어느 정도 준치할 것인지,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를 검토했으면 한다"면서 "특히 아시아문화 전당과 연관성이 있어

## 청와대 5자회담 제의 민주당 거부

차대통령 "대선때 도움 안받아...국정원 개혁 이뤄낼 것" 5자 회담을 다시 제의하자 민주당이 사실상 이를 거절하면서 여야 대치 정국을 해소할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양자 또는 3자회담이 또다시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 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이 간절하게 원하는 민생안정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존재하는 것"이라면서 "민생 회담과 관련해서는 언제든 여야 지도부와 만나서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과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민생과 연결된 5자회담 개최를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민주당이 주장하는 박 대통령의 사과와 납재준 국정원장 해임 등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대화할 뜻이

없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란 해석이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정원 댓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저는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다"며 "저는 야당이 주장하는 국정원 개혁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김광영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주의 없는 민생은 사상누각"이라며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국정원 개혁과 관련한 태도 표명 없이 민생만 논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비껴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또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의 사과와 납재준 국정원장 해임 등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대화할 뜻이

2014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수시 1차모집] 원서접수: 9월 4일(수) ~ 13일(금) 입학문의 062)605-1114 광신대학교

HNT 하나투어 advertisement featuring travel packages, hotel deals,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es sections for '상담 및 예약: 하나투어 전문 판매점', '장가계 직항 전세기', and various hotel offers like '코트야드 뉴욕 맨하탄 헤럴드 스퀘어 호텔'.